

출처 : 세계일보 조풍연 기자 jay24@segye.com

독일

“오리와 함께 강 헤엄치기”

독일인의 도전 화제



▲독일 슈피겔 온라인 캡처

겔 온라인판이 3일 보도했다.

이 언론에 따르면 피아마리 비트(33)와 빌프리트 아놀드(58)라는 두 독일인은 독일의 중부 도시 카셀에서 폴다강 등을 따라 헤엄을 쳐 북해 연안의 항구도시 브레머하펜까지 가기로 했다. 열기구 사업을 하는 파트너들은 이번 여행에서 자신들만 헤엄을 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르고 있는 애완용 오리들과 함께 500km에 달하는 거리를 헤엄을 치면서 가기로 했다.

이번 아이디어는 아놀드가 냈다. 독일군에서 강 전문가로 근무했던 아놀드는 평소에도 강이나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것을 즐겼으며, 항상 독일 중심지역에서 바다까지 헤엄을 쳐서 이동하는 것을 꿈꿔왔다.

아놀드는 이전에도 비트와 함께 강 등지에서 수영하는 것을 즐겼지만 오리와 함께 수영을 하는 것은 또다른 이유가 있다고 전했다.

비트는 “예전에 강에서

독일에서 오리들과 함께 강을 헤엄쳐 바다까지 가는 프로젝트가 진행돼 화제가 되고 있다고 독일 슈피

수영을 할 때 백조 한 마리가 우리 곁에서 함께 수영하기 시작했다”며 “지금 생각해도 정말 짜릿한 경험이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때의 경험을 되살리기 위해 이번에는 애완용 오리와 함께 수영하기로 한 것이다. 독일 중심부에서 출발한 이들은 6주 후인 9월 중순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아놀드와 비트는 하루에 대략 10~15km 정도 수영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오리들은 하루에 20분 정도만 헤엄치도록 하며 대부분의 시간은 오리가 올라갈 수 있는 작은 쪽배 위에 태울 예정이다. 오리들이 무리하게 수영을 할 경우 체력이 고갈될 수 있고, 무엇보다 헤엄을 치는 것에 대해 지루함을 느낄 경우 여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번 오리와의 여행이 단순한 시선끌기나 홍보활동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미 환경단체와 연합해 강 보호를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동물권리보호론자들의 비판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비트는 “동물보호론자들은 당장 슈퍼마켓에 달려가 다른 오리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와 비교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